# 청렴 21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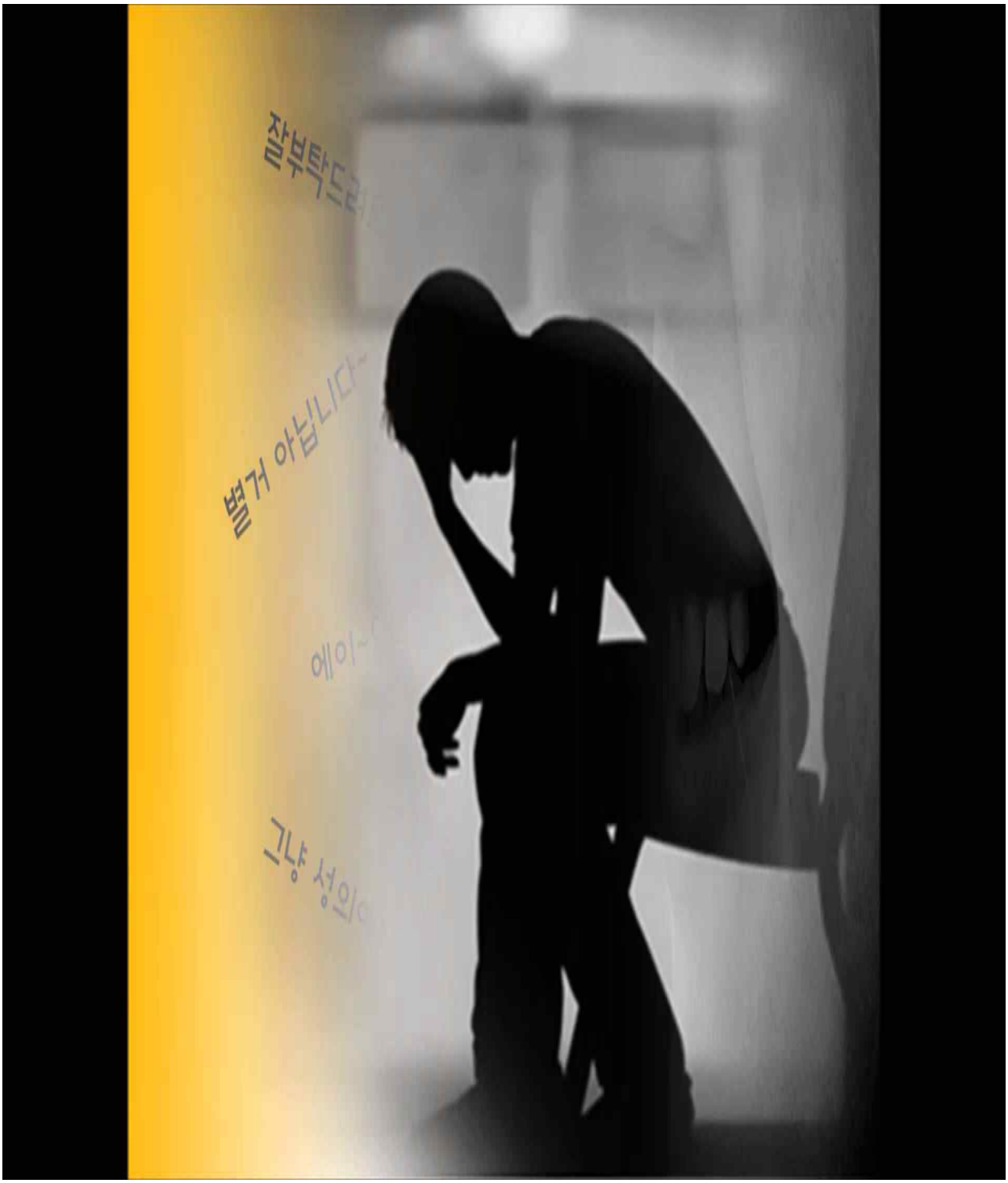
이달의 청렴사진
이달의 추천 청렴영화
이달의 부패 사건사고
[인터뷰] 포항국토 대표 청렴지킴이 김광원 주무관
이달의 청렴인물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016년 3월호

# 이달의 청렴사진

- 생각하는 로뎅의 환생인가? 오늘도 고민하는 김주사, 과연 결과는?



# 이달의 추천 청렴영화

- 충격! 경악! 네이버 평점 9.08의 전설적인영화

베를린 영화제, 칸영화제에 초청될 뻔했던(?)

# 이달의 부패 사건사고

–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chosun.com 사회

뉴스 | 오피니언 | 경제 | 스포츠 | 연예 | 라이프 | 건강 | 포토·영상

법원·검찰·경찰

## 검찰, 수천만원 금품 수수 국토교통부 과장 체포

진중언 기자

19

0

입력 : 2016.02.16 21:00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사무실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16일 국토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P 과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한 P 과장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직 과장이 청사에서 체포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즉시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제휴안내 · 구독신청

# [인터뷰]이달의 포항국토 청렴지킴이

## – 운행제한차량 인·허가의 달인 김광원 주사를 만나다

2016년 3월 9일 우리사무소 2층 구조물과에서 진행된 김광원 운행제한차량 인·허가 주무관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으로 신명나는 과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우리사무소 전체 서면 민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운행제한차량 인허가 업무의 적시처리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아온 김광원 주사의 사진은 본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

###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청렴, 또 청렴

"좋죠. 사실 힘들때도 있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감사의 편지를 받다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하하하 ."

평소 업무처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 이런 지면을 통해 부각되는 것이 어색해서일까. 시시콜콜 사생활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전형적인 '포항남자'의 모습이 무심코 나온 것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의를 읽어내긴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하자 그는 자세를 고쳐앉았다. 공무원 김광원은 국도7호선을 운행하는 불법 과적차량의 위험성, 과태표 부과와 관련된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거침없이 생각을 쏟아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 대신 그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하자"고 말을 잘랐다. 그는 그리고 "1990년대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부패사고의 발생에 대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점도 많은 만틈 치열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과적검문소 현장에서 벗어나 한발 물러서 있기 때문일까. 그는 잇따른 과적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과태료 부과관련 불법 현금수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궁핍한 현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닐런지요."

2016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가 싶더니 어느새 꽃샘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그의 인터뷰는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떳떳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김광원 주무관은 인터뷰에서 올해는 부정청탁법의 통과로 더한층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나는 거창한 구호보다 내실이 있는 행정이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설마 누군가가 알겠는가는 의심이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고 답했다.

# [쉬어가는 코너] 청렴 만화

청탁금지법

영재선배님! 나랏일에 고생 많으십니다.
몸보신 좀 하시라고 삼백 넣었습니다.
수락아! 공직자는 이런 돈 받으면 안된다.
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저랑 선배님 직무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랑 선배님 직무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맙다.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 뭐든지 도와줄게.

에휴,,, 공직자분이 이러시면
이제는 큰일나죠
펏!
짠!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9.4%

이런한 공직자의 부패근절을 막고
더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탁금지법

그동안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달의 청렴인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1887~1964)**

가인선생은 전라북도 순창(淳昌)에서 태어나시고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18세 때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의병부대에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주의가 팽배하는 것을 보고 1910년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日本)대학 전문부에 입학했고 1915년 명치(明治)대학 법학부를 마친 후 6년만에 귀국하였다. 그후 1919년 밀양지원 판사로 부임, 1년 정도 판사로 있다가 이를 사임하고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11대 국회 김진배 의원이 지은 가인 김병로 참조).

그후부터 가인선생은 3·1운동 참가자, 임시정부 요인, 김상옥 열사, 6·10만세 사건 참가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에 참가하였던 우리 민족의 여러 사건에 직접 변호를 맡아 조선인의 민권투쟁과 독립운동 등에 앞장섰다. 이에 1931년에는 변호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때 가인선생은 나라 없이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가인(街人, 거리의 사람)이라는 아호를 스스로 지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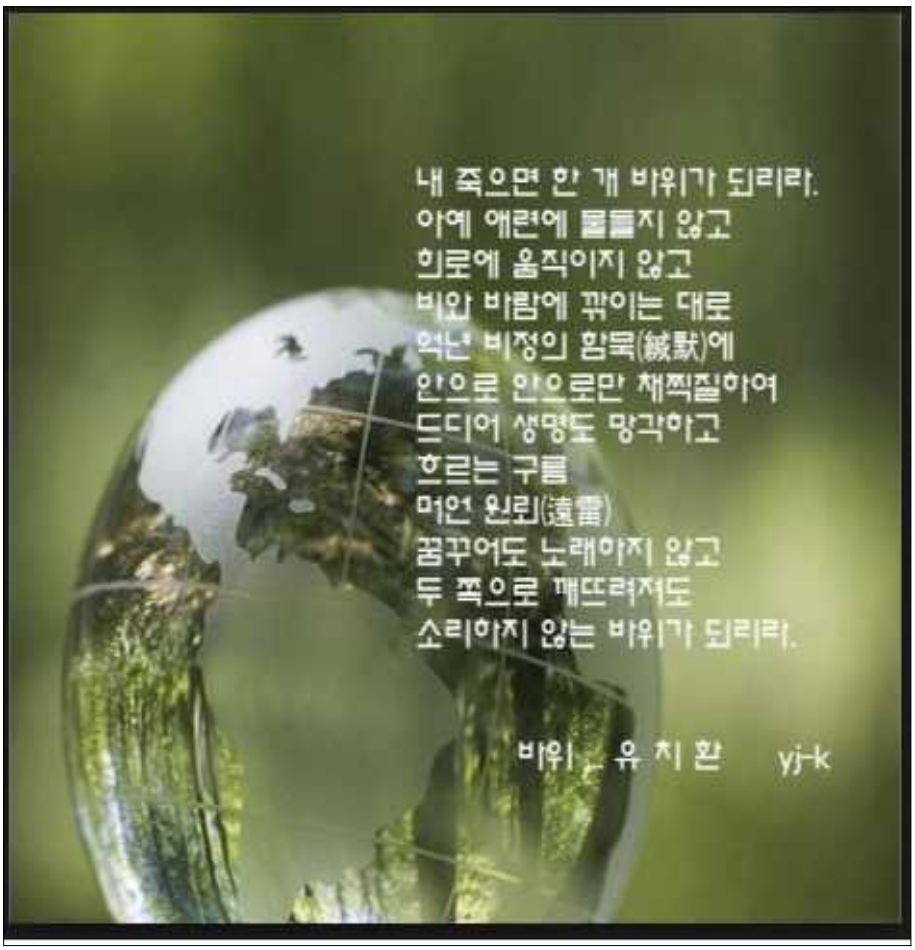
가인선생은 정부 수립 후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앞장섰다고 한다.

그리고 가인선생은 청렴결백한 생활로도 유명하였는데 1950년대 박봉에 항의하는 판사에게 "나도 죽을 먹으면서 살고 있소. 조금만 더 참고 국민과 같이 고생해 봅시다"라고 일축한 적도 있었다. 또 "집무실에 놔둔 잉크가 얼었습니다"라고 하소연 하는 직원에게는 "하지만 영하5도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난방이 안 돼요. 나라 찾은지 얼마 안 되니 우리가 청렴과 검소로 국가산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라고 훈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또 가인선생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직후 대법관들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법조인은 물론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가인선생은 퇴임하면서 "그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일은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데 인권옹호를 위한 사건처리에 신속을 강조한 것이 그러하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보수로 살라고 한 것이 그러했다. 또 나는 전 사법 종사자들에게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다"면서 법조인의 청렴결백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 [청렴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 과전불납리

(오이 과, 밭 전, 아니 불, 바칠 납, 신 리)

[ 瓜田不納履 ]

---

요약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려고 구부리면 오이를 따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납(納)은 '바친다, 헌납한다'는 뜻 외에 신을 신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 밭 대신 가지 밭이라고 해도 같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호에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